

불명각 전수 1주기 추선불사 봉행

3월 19일 경주 국광사에서 스승 및 교도 200여명 동참



▲ 불명각 전수 1주기 추선불사

평생을 낮은 곳에서 교화와 수행에 정진한 불명각 전수의 1주기 추선불사가 3월 19일 경주 국광사에서 봉행되었다.

국광사 주교 안성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추선법회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200여명이 동참했다. 총지종 추선불사 의식에 따라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국광사주교 안성정사는 법문을 통해 "평생을 자신의 일신보다는 종단의 발전과 교화의 방편을 찾아 정진하시던 불명각 전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별써 열반에 드신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가신 불명각 전수님의 고귀한 보시정신을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며 고귀한 뜻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인선 통리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불명각 전수님의 1주기 추선불사에 동참해 주신 스승 및 교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불명각 전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고 가신 분입니다. 열반 후에는 자신의 남은 유산을 전부를 종단에 기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통리원 전 직원들은 고인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불명각 전수님의 유지를 동참 대중들에게 전했다.

불명각 전수님은 1931년 기사생으로 총기31년 명예전수에 임명되었고, 총기 31년 승천사 근무를 명받았다. 평생을 종단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진해서 도맡아 하셨다. 총기41년 3월 19일 세수 75세로 세연과의 인연을 다하고, 교도들의 극락왕생 서원을 받으려 아마리 정도로 가셨다. 열반 후,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1,000만원 전액을 종단의 교화 발전을 위한 회사금으로 기부해 무소유의 승가 정신을 실천하셨다.

경주 국광사= 김종열 기자.

대도행 대전수 1주기 추선불사

3월 31일 관성사에서 봉행



▲ 대도행 전수님 영전에 훈향하는 교도들

언제나 웃음으로 교도들을 대하시고, 말보다는 실천행의 모범을 보여 주시던 대도행 대전수님의 1주기 추선불사가 3월 31일 관성사에서 봉행되었다.

관성사 주교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유가족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의 정과 극락왕생의

발원으로 추선불사는 시작되었다. 관성사 주교 인선정사는 법문을 통해 "대도행 대전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없었다면, 오늘의 관성사가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나 말없는 실천행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던 대전수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며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고 이어나갈 것을 교도들과 함께 서원했다.

대도행 대전수님은 1977년 지송급에 품수 되면서 스승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육합서원당 근무를 시작으로 밀법 교화의 길로 드셨다. 1989년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관성사 주교로 부임하시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중생 교화의 불모지를 탄탄한 교화의 성전으로 만들었다. 2000년 기로스승으로 진원 하실 때까지 관성사에서 누구도 이루 지 못할 교화와 수행의 높은 탑을 세우시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에 전념하셨다.

관성사= 김종열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법 등 통과 선학원, 대각회 등과 마찰예상



3월 20일 다시 개최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법인법 제정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감추며 통과 추이를 지켜본 선학원과 대각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의 제정취지는 삼장원·염불원이 활성화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안거 수행풍토가 조성될 수 있으며, 특히 총림의 경우 염불원을 운영함으로써 총림설치요건을 충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 승가고시법 개정안은 차기 총회로 이월,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 종헌 개정의 건은 차기 총회로 이월됐다.

21일 열린 총회에서는 원로의원 후보에 태음, 대원, 종진, 혜성, 흥교, 성우, 성파, 설조, 천재, 적명스님이 추천됐다. 또한 제

심호계위원회에 지만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태성스님, 소정심사위원회에 원명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도정, 지성스님이 선출됐다. 정부의종교차별금지식 및 종교평화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오심스님, 동국대 감사후보자에 해오, 도완, 제정, 주경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특위는 의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정스님, 출가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일관스님, 선학원대책위원회 위원장 성직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재지리찾기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학스님이 나선다. 또한 '재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회'의 복지법인 전환 권유문이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불교닷컴' 제재 결의 해제의 건은 비공개로 논의해 차기 총회로 이월됐다.

호국영령 호국정신 되새기고 한반도·세계평화 기원 조계종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위 국립 현충원 참배



조계종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는 3월 15일 11시 조계종 스님 및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운영위원회는 호국영령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의지 정착을 다지고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현충원 참배 취지를 밝혔다.

현충원 참배는 입장, 헌화, 분향, 경례, 묵념(진혼곡), 퇴장, 방명록 서명, 영현승천상을 둘러보고, 호국영령들의 비문 앞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한 뒤 묵념을 올리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직영사찰 및 수도권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 분야별·지역별 전법단장, 신도단체 임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15회 진각논문대상 계획서 공모 진각종 교육원 5월 24일까지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제15회 진각논문대상 논문 계획서를 5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정주제는 '등상불과 무상불', '밀교부법의 역사와 유형' 등 두 가지다. 자유주제로도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의 학력과 전공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논문계획서를 바탕으로 종단 내, 외부의 지명된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6월 28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들은 이후 논문작성에 들어가 12월 12일(예정)

발표회를 통해 논문을 평가받게 되며, 발표된 논문은 회당학보 19집(진기68·2014년 6월 발간예정)에 게재된다.

이번 논문공모제에서는 진각종 교학 2편과 불교일반 2편, 밀교일반 2편 등 분야별 6편을 채택하며 당선된 논문 중 최우수 1편에 500만원, 선정 5편에 25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각종 홈페이지(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광고를 참고하면 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3/4 10,000	기로 총지화 3/25 10,000	실보사 이순옥 2/27 10,000
개천사 이희권 3/15 10,000	단음사 법연지 3/20 10,000	실지사 류승태 2/27 10,000
개천사 강순시 3/18 10,000	덕화사 하순옥 3/20 5,000	실지사 정우석 2/28 10,000
건화사 이연호 3/8 5,000	만보사 정덕순 2/26 10,000	실지사 범우 3/22 10,000
관성사 황성녀 2/27 10,000	만보사 한미숙 3/21 10,000	실지사 인지심 3/22 10,000
관성사 김홍조 3/12 10,000	밀인사 정정희 2/28 5,000	우리사랑나눔미
관성사 인선 3/25 20,000	백월사 한완규 3/20 10,000	손경옥 3/16 4,317
관음사 신막심 3/7 30,000	벽룡사 무명씨 3/5 10,000	정각사 구경희 3/12 20,000
기로 일성혜 3/4 357,000	벽룡사 무명씨 3/5 10,000	지인사 승효재 3/15 10,000
기로 해정 3/25 10,000	벽룡사 양정현 3/11 10,000	지인사 지성 3/15 10,000
기로 대관 3/25 10,000	벽룡사 양지현 3/11 10,000	지인사 허성동 3/21 30,000
기로 대자행 3/25 10,000	삼밀사 서령 3/25 10,000	총지사 범등 3/4 20,000
기로 밀공정 3/25 10,000	삼밀사 오혜민 3/25 10,000	혜정사 무명씨 2/26 10,000
기로 범수원 3/25 10,000	선립사 심지장 3/20 10,000	화음사 강순란 2/28 5,000
기로 범장화 3/25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3/15 40,000	흥국사 지정 3/15 20,000
기로 범지원 3/25 10,000	수인사 김봉기 2/27 10,000	강재철 3/5 20,000
기로 불멸심 3/25 10,000	수인사 정순득 3/8 10,000	진평 3/19 5,000
기로 사홍화 3/25 10,000	승천사 원봉 3/15 10,000	원정언 3/19 50,000
기로 상지화 3/25 10,000	승천사 지선행 3/15 10,000	김갑선 3/19 10,000
기로 수증원 3/25 10,000	시법사 선도원 3/25 10,000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17

사념처 수행



철학박사 화령 (중앙교육원장)

관묘원구상과(觀墓園九相)

사종위의(四種威儀)

부정관(不淨觀)에는 유식부정관(有識不淨觀)과 무식부정관(無識不淨觀)이 있다. 무식부정관은 시신의 부패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몸의 부정함을 알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다. 자아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탐진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체의 더러움과 무상함을 통해서 집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탐욕이 많고 성욕이 강한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다.

시신의 부정함을 관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림을 통하여 시신의 썩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시신을 앞에 놓고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법을 행한다. 남방불교에서는 생전에 미인이었던 여자의 시신을 앞에 놓고 부패하여 백골이 남을 때까지 그것을 관찰하면서 신체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구도자들의 처절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은 실로 끔찍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생전에 미인이었다라도 목숨이 다하면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쳐다보는 것은 물론 만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는 만지고 빨면서 거기에 집착하여 온갖 번뇌를 야기한다. 그러한 경우에 시신을 앞에 놓고 수행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극적일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야 시신을 직접 앞에 놓고 그 부패상황을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상력을 동원하여 육신의 부정함과 허무함을 관찰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과거에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우리의 신체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려고 했으며 그러한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이 묘원구상(墓園九相)이라고 하여 묘지의 시체에 대한 9가지 관찰을 통하여 신체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시신이 부풀어 오르고 푸르게 되며 흐물거리는 모습, 2.새나 짐승에게 물어뜯기는 모습, 3.피와 살이 엉켜 있는 모습, 4.살은 떨어져나가고 피가 묻

어 있으며 근육이 걸쳐져 있는 해골의 모습, 5.피와 살이 없이 곤골만 걸쳐져 있는 모습, 6.해골이 흩어져 있는 모습, 7.해골이 하얗게 되어 있는 모습, 8.해골이 쌓여 있는 모습, 9.해골이 가루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혐오감이 드는데 시신을 직접 앞에다 놓고 부패해서 해골이 가루가 될 때까지 쳐다본다고 생각해보라. 누구든지 우리 신체에 대한 혐오감과 더불어 덧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시체의 부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먼저 팽창관(膨脹觀)이라고 하여 목숨이 떨어지면 시신이 곧 부패하여 부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신의 더러움과 덧없음을 관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과 타인의 몸에 대한 애착을 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정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며 바른 지혜를 닦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평소에도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수행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정관을 통하여 신체에 대한 혐오감만 기르고 신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마구 다루거나 혹은 역으로 "죽으면 썩을 몸"으로 생각하여 잘못된 쾌락에 집착한다면 이 또한 폐단이라고 할 것이다.



시신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는다

어 오르는 것을 관찰한다. 청어상(靑淤想)이라고 하여 시신이 점점 푸르게 변하는 것을 떠올린다. 농란상(膿爛想)은 시신에서 고름과 같은 더러운 오물이 나오며 흐물흐물 썩어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잠작이산상(斬斷離散想)이라고 하여 팔다리와 온몸이 찢어져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산란상(散亂想)이라고 하여 시체가 새나 기는 짐승 등에 의하여 쪼아먹거나 물어뜯겨서 결국에는 뼈만 남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혈도상(血塗想)은 시신에서 피고름이 흘러 나와 도처에 흩어져서 결국에는 뼈대만 남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이다. 충취상(蟲聚想)은 피고름이 흘러나온 가운데에 구더기가 모여 있는 것을 상상한다. 백골관은 처음에는 발바닥부터 시작하여 온몸의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에는 백골만 남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탐욕심을 다스리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종위의(四種威儀)

살아 있는 우리의 몸은 철저히 수행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의 사전 준비로서 네 가지 위의를 필요로 한다. 즉, 행·주·좌·와(行·住·坐·臥)가 법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일상의 모든 동작이 품위가 있으며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위의에 대하여 《대념처경》에서는 부처님께서 “了知”라는 말을 강조하셨다. 즉, “걸을 때는 내가 걷는다는 것을 알고, 일어설 때는 내가 일어선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내가 앉는다는 것을 알고, 누울 때는 내가 눕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떠한 자세를 취하든 이와 같이 여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정념을 갖추고 정지(正知)로써 관찰하는 것이며 심지어

는 자는 중에도 멈추지 말고 행주좌와 어느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분명히 알[了知]”이라는 것이다.

어쨌서 이러한 ‘분명한 알’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생각하고 멈출 때는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어려우냐고 할지도 모른다. 왜 이러한 것이 수행이라고 불려야 하나 의심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마음과 몸이 따로 놓고 있다. 우리의 신체는 어떤 동작을 하던지 마음과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행주좌와의 4종위의에 대한 분명한 관찰은 우리의 마음이 몸에 선행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며 마음의 긴장과 조급함을 해소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히 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동작은 법도에 맞게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무아와 무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

初發心自敬言文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 쉬운 번역!
- ✓ 간결한 표현!
- ✓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종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총지동의보감

여성변비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변비란 배변이 적절한 시기에 나오지 않고 수일간 장에 머물게되는 현상입니다.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스트레스, 편식, 운동부족,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위와 장의 기능이 이상시 생기기 되면서 소화, 흡수, 배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감정의 변화와 기복이 많고 호르몬의 변화가 잦으며 체력이 약해 변비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성의 변비는 병적인 상황외에도 정상적인 생리주기와 임신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전에 변비가 오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장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자연히 생리가 지나고 나면 호르몬조절에 의해서 변비가 회복됩니다. 이 외에도 임신시에는 임신 호르몬의 영향과 태아가 자람에 따라서 복강이 커지고 장이 눌려지면 배변장애가 오게됩니다. 또한 분만 이후에도 늘어나고 이탈되어있던 복강내의 장기들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 변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이어트와 성형의 열풍 또한 변비를 부추기고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를 거르거나 줄이게 되면서 변량이 적어지고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발됩니다. 오히려 변비로 인해서 하복부비만이 초래되는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이하면 오장육부와 위장의 운동이 원활해지며 변비뿐 아니라 생활의 에너지를 얻게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와 잡곡, 야채, 해조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혹은 임신부의 경우라도 체중의 증가에 신경을 쓰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거나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장기능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를 소개하면 함초의 경우 말려서 가루로 내어 차스폰으로 두 스푼씩 복용하면 장내의 숙변을 제거하게 되고 혈관과 장기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주로 비만한 여성의 경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씨(도인)의 경우 가루를 내어 복용하게되면 생리전 변비가 심하고 생리통이 있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임신중에는 팜종이나 잣을 하루 10-20개정도, 호두는 2-3개정도 복용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도와주게 됩니다.

불자생활법률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저는 임차인이었던 김씨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인 이 사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 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차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그 금액이 차임이상의 막대한 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 하여 임차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단순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에게 권리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甲이 귀하의 권리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점포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甲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판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진리의 여율

산에서 살며(山居)

나옹화상 지음

발우 하나 물병 하나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 깊은 산 홀로 숨어 마음대로 하며 사네. 바구니 들고 고사리 캐어 뿌리채 삶기도 하지만 누더기를 머리까지 둘러쓰는 일 할 수가 없네.

나에게 진공무사의 선이 있으니 바위 사이 돌에 기대어 한가로이 잠을 자지. 어떤 사람이 특별한 무엇이 없는가 물건만 메추라기 깡지처럼 헤진 옷 한 벌로 백 년을 보낸다오. 소나무 보이는 창문에 하루 종일 아무 변잡한 일 없고

둘 물들은 항상 평온하고 고인 물도 맑아라. 다리 부러진 솔엔 맛있는 음식 풍족하게 어찌 명리를 찾고 영화를 구하리오?

흰 구름 쌓인 곳에 세 칸 집 안듯 늙듯 거닐든 절로 한가로워라 차가운 석간수 반야를 이야기하며 흐르고 맑은 바람은 달과 함께 온 몸을 시원하게 하네

한국전통사상총서 불교편 09 시선집에서



저주파 치료기



혈액 분석기



온열 전기침



좌훈욕기



저주파 치료기



자동팔강진단기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비만 클리닉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 상담 02) 545 - 0072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여성美 한의원

1) 비만클리닉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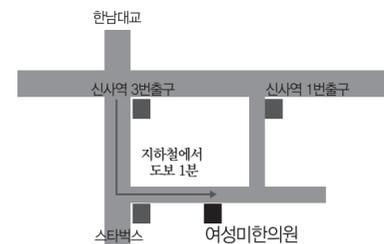
2)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장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부류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입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 좌약 요법 (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가족클리닉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

오시는길



진료시간

평일 9:30~18:30 주말 9:30~16:00 점심시간 13:00~14:00



영화에서 불교보기 (27)

승속을 구분하지 않다, 라마불교 세계관 표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라다크 배경 <삼사라>

영화 <삼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세계 불교에서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라마불교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쿤둔>과 같은 영화에서 달라이라마 이야기를 통해서 라마불교를 조금 경험하긴 했지만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라마불교가 서양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라마불교라면 <삼사라>는 새로운 시각의 라마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마불교라면 티베트불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영화를 통해 제대로 된 티베트 불교를 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윤회'라는 의미의 <삼사라>의 또 다른 장점은, 영화의 배경이 라다크라는 것입니다. 라다크는 '상그릴라'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신비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그 자연만큼이나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의 마지막 낙원 같은 곳이지요. 영화는 히말라야 설산과 황토 빛 별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새파란 하늘과 푸른 초원, 이런 이질적인 풍경들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라다크의 빼어난 경치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주연을 제외하고 대부분 라다크 현지인을 캐스팅했는데 그들의 순수한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발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장면을 든다면, 어떤 아줌마가 아기에 젓을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그는 무심하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자신을 정화해왔지만 그 모습에서 그의 억눌려있던 욕망이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감정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한 절망적이기도 했습니다.

막연하게 떠돌던 욕망은 어느 농가에서 페마라는 여자를 보면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 타쉬는 보다 강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행자로서만 살아와서 그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릴 지도 모른다고, 차라리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더 빨리 관심을 끊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세속을 경험하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마침내 타쉬는 세속인이 되기 위해 물가에서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스런 일을 하기 위해 목욕재계하는 것처럼 그의 세속 행 또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통과의례였던 것입니다. 세속에 대한

것이 낫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천 가지 욕망이란 세속의 삶을 말합니다. 페마에 대한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수자타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고,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세속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가지 욕망이란, 3년 3달 3주 3일의 수행을 마치고 왔을 때 그를 괴롭혔던 그 애초의 욕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충분히 이 말에 공감했기에 타쉬는 스승의 편지를 통해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속의 삶을 접고 승려의 길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타쉬는 세속으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세속을 빠져나와 수행자의 삶으로 들어갈 때도 물가에서 몸을 씻습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타쉬는 언제나 승려였습니다. 스님들이 만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것처럼 그 또한 욕망의 실체를 경험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세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구도의 과정에서 세속을 경험했던 것이고, 다시 승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신설화>의 세계관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승려의 일탈을 통해 세상 삶의 무상함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반전을 보입니다. 다음 순간 느닷없이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바다에 보내면 된다

모습도 좋았습니다.

제6회 부산 국제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삼사라>(2001)는 독일,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등 4개국 합작영화입니다. 인도 출신의 판 나린 감독은 이 영화를 찍기 위해 무려 7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라다크의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촬영을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혹독한 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우 공이 많이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삼사라>의 주인공 타쉬는 수도승입니다. 그는 5살에 출가해서 20여년 수행자로 살아왔으며 3년 3개월 3주 3일의 고행도 마쳤습니다. 고강도의 이 고행을 마치는 날 타쉬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르지 않았는지 허리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은 마구 뒤엉켜 있고, 손톱도 길게 자라 있고, 몸은 가부좌를 천 곳곳하게 고정돼 있는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몰골이었습니다. 꽤 깊은 삼매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연출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그가 보인 감정에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깊은 체험을 했으면 인간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 극복했을 거라고 여겼는데 그는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가정집을 돌면서 축복을 내리고 액을 제거해주러 다니다가 타쉬는 자신에게

티베트인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속에 대해 티베트인들은 몸을 씻고 들어가야 할 성스러운 세계로 생각하고, 또한 수행의 단계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타쉬는 페마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진 현실은 보통의 신혼부부들이 만들어가는 일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들은 귀엽고 부인은 다정다감하면서 현명하고,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타쉬는 평범한 삶에 권태를 느낀 것인지 마을에서 품값을 받으며 노동을 파는 여자에게 홀연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보다는 처음 페마에게서 느꼈던 것처럼 욕망에 가깝습니다.

수자타와의 관계를 통해 타쉬는 욕망의 속성을 이해했습니다. 페마에 대한 욕망이 수자타에 대한 욕망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욕망이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타쉬가 처음 속세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는 욕망에 대해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단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속세에 발을 들여놓았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더 이상 속세에 머무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스승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스승은 입적에 들면서 그에게 '천 가지 욕망을 채우는 길보다는 한 가지 욕망을 극복하는 길을 택하는

페마를 등장시켜 타쉬를 나무라게 합니다. 자신과 아들을 버리고 떠나는 타쉬의 이기심을 들춰내고, 여자를 탐하는 것처럼 구도에 열중했다면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바위에 새겨진 글귀를 보여줍니다.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려면 바다에 보내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의 도입부에도 잠시 등장했던 글귀로서 감독의 의도가 담긴 글입니다.

이 글귀는 앞의 스님의 편지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스님의 편지가 승과 속을 갈라서 승가의 입장에서 가치관이라면 이 글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속은 비록 찰라적이고 무상한 것이지만 그 안에 근원적인 것을 갖추고 있기에 근원적인 것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 세계를 양분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관시켜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삼사라>에서 보여준 세속은 따뜻하고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랜 시간 수행해온 타쉬 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쉬에게서 애인을 빼앗긴 남자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마음을 바꾸고 타쉬와 페마의 결혼을 주선할 정도로 관대했고, 페마 또한 타쉬가 일꾼이 너무 많다고 해고하려고 하자 "왜 불쌍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또한 마을에 곡식을 수매하러 오는 장사꾼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익을 취한다는 걸 발견하고 타쉬가 불같이 화를 냈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담담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방이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이익을 봤으니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비록 세속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기심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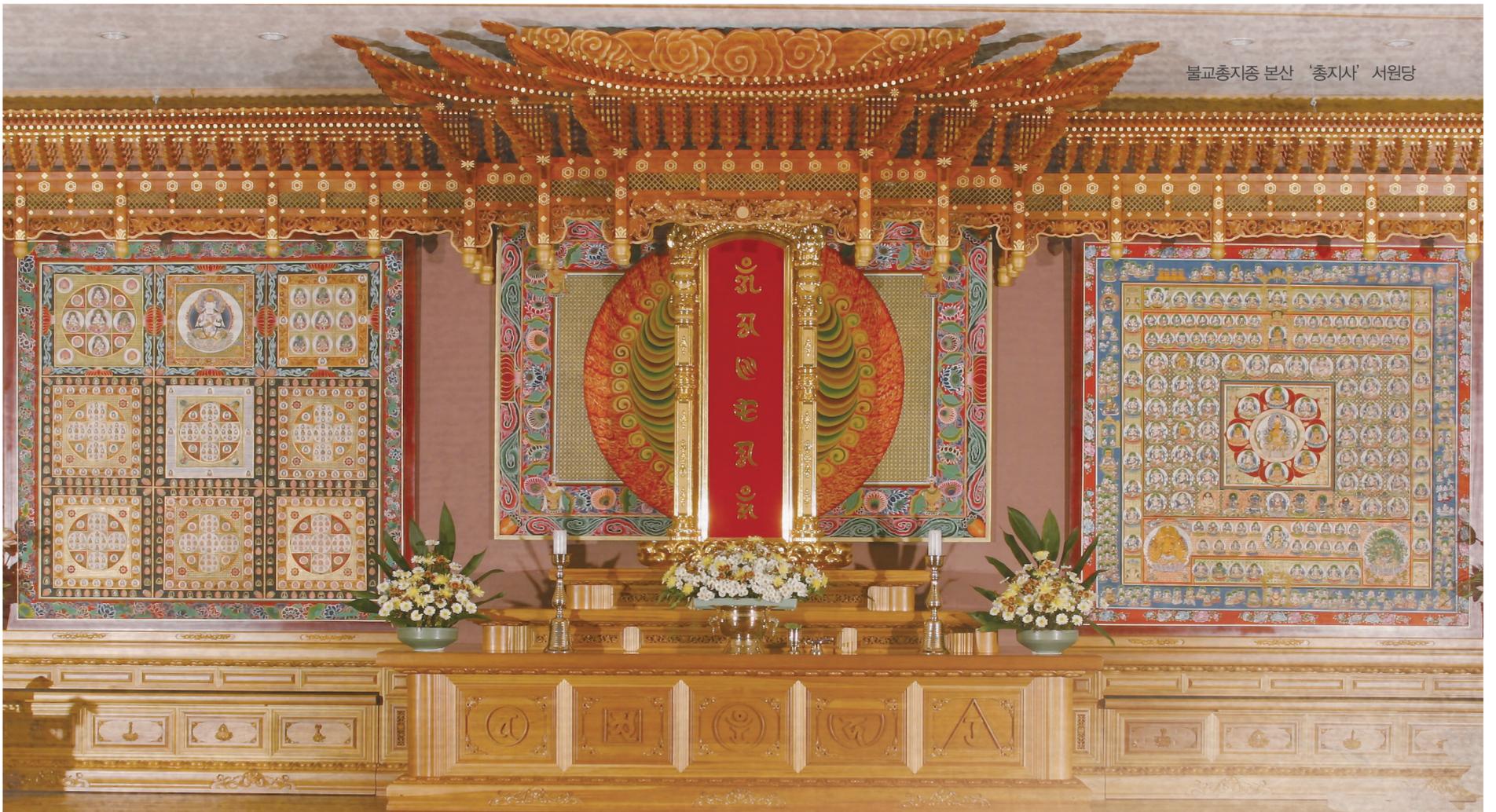
세속의 삶이, 그냥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음을 구했고, 관대함을 배우면서 점점 나은 삶으로 성장해갔으며,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삼사라, 윤회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숙시켜왔던 것입니다. 세속은 그냥 소모적인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타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스승의 편지처럼 한 가지 욕망을 이겨내는 길, 승려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것인가? 영화는 타쉬의 선택에 대해 열린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건, 세속 또한 깨달음과 무관한 세계가 아니므로 타쉬가 승가로 돌아가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그의 성장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삼사라>에서 보여준 세속은 전혀 비속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불교가 보여주는 세속에 대한 긍정이 영화의 매력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승도 대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속도 비속하지 않게 표현하고, 두 세계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라마불교의 세계관이 뛰어난 라다크의 풍경과 조화를 이뤄 뛰어난 불교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심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월초불공

1월28일~2월3일 오전10시
3월4일~3월10일 오전10시

자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13년 4월 5일

음력 2월 25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61호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불교총지종 나라와 자녀를 위한 『상반기 49일 나라와 자녀를 위한 불공』이 4월 8일 전국의 사원에서 회향한다.

지난 2월 19일 입제한 전국의 총지종 교도들은 49일 동안 스승과 함께 나라의 안녕과 자녀들을 위한 불공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불공에 임했다.

불교총지종만의 특별한 의례로 진행되는 49일 불공은 『진호국가불사』로 그 기원은 멀리 신라 명랑법사에게서 거슬러 올라간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유희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종조 원정 대종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

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이 불사의 주요 서원사항은 나라발전, 국대민안, 조국평화통일이다.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불행한다. 지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녀 불공이 추가되었다.

이번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양력으로 정하여 4월 8일에 마친다. 하반기 49일 불사는 5월 28일 입제하여 7월 15일까지 불행된다.

총리원= 장동욱 계장



▲ 총본산 총지사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총지종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 원적 다비식은 3월 18일, 영천 국립호국원 안장



▲ 대원 대정사 영결식

불교총지종 중앙총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가 3월 15일 열반에 들었다. 총지종 총리원은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조문객들을 맞았다.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에 인선 총리원장 직무대행, 집행위원장에 수현 부산.경남 교구장으로 구성하고 장례 실무를 맡아 진행하였다. 빈소에는 유가족과 함께 수현 장의 집행위원장, 정각사 법상정사가 함께 조문객을 맞았다.

주요 조문객으로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

산스님과 임직원, 진각종 부산교구장 효선정사 및 신도회장,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한일불교 문화교류회 사무총장 마득종 총무원장 송정스님, 부산불교신도회 이윤희 회장,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 김윤순 단장, 부산불교방송 임직원 등 부산.경남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대원 대정사님의 영정 앞에서 극락왕생을 발원하였다.

3월 18일 오전에 불행된 영결식은 대원 대정사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생전의 다정다감하신 모습을 떠올리는 스승과 교도들의 눈물로 넘쳐 흘렀다. 수현 부산.경남 교구장의 집공으로 시작된 영

결식은 도현 운전자 주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총지종 종단의례에 따라 진행된 영결식에서 총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는 조사를 통해 “대원 대정사님의 정직하고 소탈한 모습은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고, 말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신 삶은 우리 종단이 나아가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정사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스승을 대표하여 정각사 정원 전수는 “굳건한 사명감과 깊은 신심과 발심으로 일관해 오셨던 대원 대정사님! 정각사 주교와 중앙총의회 의장으로 오로지 종단발전과 일체중생의 구제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 오셨습니다.”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화와 수행에 정진하시던 평소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로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신인록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장은 “언제나 자상한 얼굴로 대해주시던 대원 대정사님, 이제 대원 대정사님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생전의 모습은 영영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며 평소 자상한 가르침으로 교도들을 이끄신 대원 대정사의 유지를 받들 것을 다짐했다. 눈물로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영결식을 마친 후, 발인제에서는 부산의 하늘도 슬픔으로 가득찬 비를 뿌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부산영락공원에서 다비를 마친 대원 대정사의 법구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젊은 날을 국가에 바친 유공으로 영천 국립호국원에 안장되었다.

부산= 김중열 기자.

조화를 보내 주신 분(무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천태종 총무원장 장도정, 한일불교교류회 이사일동, 부산불교연합회 수불스님 외 임직원, 대한불교 진각종 부산교구 스승일동,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흥파,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대한불교 원웅종 총무원, 대한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석진봉,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대한불교 천태종 대구 대성사 주지 류화산, 영주암 주지 범산, 해원정사 주지 원허,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윤희,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부산불교방송 사장 박순곤, 우리불교신문 사장 김원우, 세무사 김우태, 성원파워(주) 대표이사 이성규, 한성약품 대표 오상규

불교총지종에서 조화를 보내 주신 분

종령 효강대정사, 총리원장 직무대행 인선, 대구.경북 교구 스승일동, 서울.경인 교구 스승일동, 충청.전라 교구 스승일동, 부산.경남 교구 스승일동, 신정회 서울 지회장 김은숙, 신정회 부산.경남 지회장 신인록, 정각사 신정회장 류길자,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성,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새로운 종풍운동

-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 합시다.
-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제81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의 스승님들께서는 수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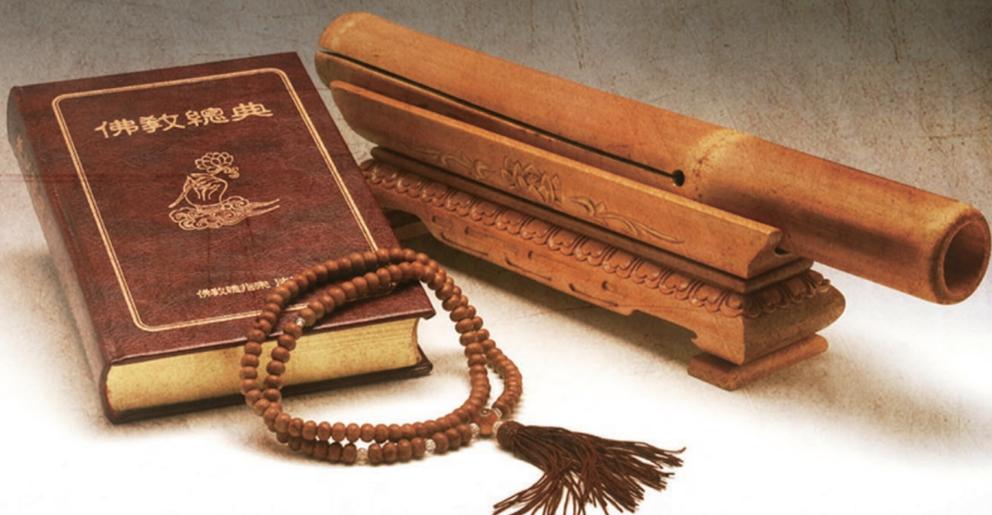
| 일 시 | 개강식 총기 42년 4월 24일(수)

회향식 총기 42년 4월 26일(금)

| 장 소 | 불교총지종 총리원

| 대 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총리원장 직무대행 인선



종립 동해중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제6대 회장에 김진도(3회) 동문 취임



▲ 제6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케이크 절단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문회는 2월 28일 부산 온천장 허심정 크리스탈홀에서 『제6대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5대 회장인 이진복(3회, 동래구 국회의원) 회장의 뒤를 이어 제6대 회장으로 김진도(3회, 청담종합 건설, 세양산업개발 대표) 회장의 이.취임식과 동문 가족의 밤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제6대 동문회 집행부는 회장 김진도(3회), 수석부회장 김진태(4회, 우리은행 이사), 사무국장 변 현(4회, 금수산개발 대표), 상임이사에 백종현(7회,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진수(16회, 부산 시의원)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고문에는 조현호(2회, 전 경찰 청장), 이진복(3회, 동래구 국회의원) 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진도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서 동문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이진복 회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약하나마 동문회의 발전과 모교 장학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교 지원을 통해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맡아 장래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일임을 다할 것을 동문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제6대 동해중 총동문회 집행부의 각오를 밝혔다.

이날 동문회는 지난해에 이어 모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3학년 후배들의 간식비(약 700만원)를 장재계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고, 후원 협약 조인식을 했다. 전달된 금액은 6월 말까지 후배들의 간식을 제공 할 계획이다.

이어 모교 『교육활동유공교사』로 선정된 송인근, 김연자 선생님께서 감사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케이크 절단과 견배제의를 끝으로 이.취임식을 마치고 2013년 동문 가족의 밤으로 행사를 이어갔다.

동해중= 법선 정교

부산광역시봉족위원회

2013년 봉족 결성법회봉행

봉족슬로건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발표



▲ 2013년 부산광역시봉족위원회 결성법회(부산 코모도 호텔)

부산광역시봉족위원회(이하 봉족 위원회)는 3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13년 봉족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정각사= 김윤경 통신문

하산스님, 불교총지종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수현정사, 성화사 주교 지광정사, 법성사 주교 묘흥전수, 실보사 주교 덕광정사, 삼밀사 주교 서령정사, 정각사 법상정사, 동해중 법선정사, 부산.경남 신정회 신인록 지회장, 만다라 합창단 김윤경 단장, 김세화 총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결성법회에서 봉족위원회는 5월 11일 구덕운동장에서 봉족연합대법회를 봉행하고, 구덕운동장을 출발하여 대청로 까지 이어지는 연등 행렬을 준비하고 있다.

봉족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각 사찰 별로 연회단을 구성하여 거리 공연을 펼 계획이다. 봉족 장엄물 점등식은 4월 27일 부산역광장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관성사 이타심보살 사위 김병찬 박사

토종균 유전자 최초 발견 세계적인 관심 집중



▲ 김병찬 박사(생명공학연구원)

관성사 교도인 이타심보살의 사위인 대전 생명공학연구원 김병찬 박사는 국내 최초로 한우 장내에서 메탄균 신종을 분리, 토착 메탄균의 유전학적 특성을 세계 최초로 분석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메탄균을 최초로 분리한 김병찬박사는 세계적인 학술지를 통해 과학자로서는 최고의 반열에 들었다.

이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유리알 한 알을 찾은 것과 같은 업적이다.

김 박사의 장모인 이타심보살이 상반기

49일 자녀불공 중에 이러한 업적을 낸 것을 보고 관성사 교도들은 모두가 보살님의 지극한 불공으로 이루어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라고 입을 모았다.

이타심보살은 평생을 신심으로 지극한 불공과 수행정진으로 교도들의 모범이 되는 보살이다. 관성사의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앞서고, 보시행의 말없는 실천으로 오늘의 가피가 있다고 보살님은 수줍게 웃는다며 교도들은 전했다.

관성사=김종열 기자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 합동 워크숍

지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부산·경남 신정회 지회(회장 신인록)는 3월 14일 경남 밀양에서 신정회, 교구 스승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신인록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경남 지회의 간부들과 스승님들이 함께 모여 총지종의 발전을 도의

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감개 무량합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부산·경남 교구 지회는 올해 행사 등에 대한 각 사원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봉족 연등준비 한창

실지사 각자님들도 적극 동참



실지사(주교 범우정사)에서는 봉족 연등 준비가 완료되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된 연등 만들기 실지사의 보살님들과 함께 각자님들도 적극 동참 화제가 되고 있다.

실지사 대상, 보경, 고운, 관덕 각자는 힘들고 지루하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정성껏 연등공양을 준비했다. 실지사는 모두 같이 힘을 모아 3월 28일 260여개의 연등 설치를 완료했다.

실지사=홍정숙 통신문



부산 봉족 연등축제 주요일정

- 1. 봉족점등식
 - 일 시: 불기2557(2013)년 4월 27일(토) 오후 7시
 - 장 소: 부산역광장 “특설무대”
- 2. 부산연등문화제
 - 일 시: 불기2557(2013)년 5월 7일(화) ~ 12일(일)까지
 - 장 소: 용두산 공원 및 광복로 일원
- 3. 봉족연합대법회
 - 일 시: 불기2557(2013)년 5월 11일(토) 18시
 - 장 소: 구덕종합운동장
- 4. 제등행진
 - 일 시: 불기2557(2013)년 5월 11일(토) 19시 출발
 - 구 간: 구덕종합운동장 ▶국제사 ▶대청로

야단법석

종립 동해중 학교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 탄생

2013년 3월 29일 17:00 동해중학교 동해사 서원당에서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지도법사 법선정사)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회원은 탁상달 교감선생님을 비롯 하여 허봉길 수석교사 등 모두 14분의 선생님 들로 구성된 불교 총지종 종단 산하 최초의 교직원 불자회이다.

법선 정사는 “동해 교직원불자회는 본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불심을 통한 학생들의 교화는 물론, 교직원간 소통과 배려를 통한 화합과 나눔의 문화를 조직의 기저로 조직되었습니다. 특히 자기 심성 수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위한 일상적인 수행과 매월 격주로 신행활동 및 설법을 통해 학교 발전과 총지종 교세 확장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며 동해중 교직원 불자회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동해중학교 교직원 불자회가 처음 시작이어서 많은 선생님과 학교 구성원들의 참석을 이끌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동해중학교 전 교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불자회를 만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교현장에서 수업과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해중학교 어머니 독서회 출범

2013년 3월 21일 오후 2시 동해중학교 책마루(동해중 도서관)에서 동해중 『책내을 글항기 어머니 독서회』가 출범했다.

어머니 독서회는 2003년에 개설되어 “책임은 학교문화 만들기, 선진학교 도서관 만들기”에 앞장서, 부산 시 교육청 산하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어머니 독서회이다.

올해 새로 구성된 임원단으로 회장에 홍영희(3학년 고재영)학부모님, 부회장에 김수미(3학년 황태정)학부모님, 장미경(2학년 정성훈)학부모님, 정대숙(1학년 김정현)학부모님, 총무이사에 이지영(2학년 손범수)학부모님이 선출 되었다.

또한 지도교사는 박미경 선생님, 자문교사는 탁상달 교감선생님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머니독서회는 문학인 초청 특강, 도서기증 운동, 독서 릴레이를 통한 책임기 운동, 선진학교 및 도서관 방문을 통한 목표의식 고취 교육, 봉사 및 계몽활동, 독서 및 진로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은 물론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앞장서고 있는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단체이다.

올해는 54명의 회원이 가입하였고, 특히 학부모회의 모든 회장단 어머니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범적 학부모 회로서 활동이 기대된다.

동해중학교 불교 어머니회(반야회) 결성

2013년 3월 25일 오후 3시 동해 책마루와 동해중학교 동해사 서원당에서 불교 어머니회 회원(15명), 법선정사(제단 사무국장), 탁상달교감, 파라마타 지도교사(김진화, 이종덕, 최성봉), 주무교사(김재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중 반야회(불교 어머니회)』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회장단 인사, 신입회원 소개 및 연간활동 안내, 학교 학사일정 안내,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등이 이루어 졌다.

반야회 회원들은 회장에 박진숙(3학년 김태관)학부모님, 총무는 김수미(3학년 황태정)학부모님을 추대했다.

동해 반야회 모임의 근본 취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신행활동을 통한 심성 수련에 있다. 2013년도 불교 교리의 이해, 불교총지종 종단 수행법, 불교 유적 답사 등, 각종 행사와 사업이 내실 있게 꾸며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야회의 ‘배려와 나눔’의 부처님 가르침이 한층 더 증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도법사 법선정사는 “총지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해중학교가 명문 사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불교 어머니회인 반야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불교 종립학교의 주인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총지종단의 후원과 격려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다양한 방편으로 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지 상 설 법

기도의 본질은 행복추구입니다.



동해중학교 정교 법선정사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자연 현상에 대한 공포를 접하면서 자기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신(神)적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빌거나 구하는 행위로서 기도가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다 세련된 신(神)을 만들어 신의 종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이루어지고 구해진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종교를 만들어 기도를 합니다. 반면 불교의 기도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여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행(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행하는 심행(心行)입니다. 또 하나는 몸이 행하는 신행(身行)이고 다른 하나는 입이 행하는 구행(口行)이 있습니다. 총지종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身), 구(口), 의(意) 삼밀수행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마음의 행이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행입니다. 우리가 신심(信心)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마음, 즉 심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고, 동시에 내가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부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법이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다는, 부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신행이라는 것은 불공하고 기도하는 몸가짐입니다. 몸가짐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한다고 절을 합니다. 매일 108배 한다는 분도 있고, 매일 천배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굽혀서 절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심(下心)한다는 몸짓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천리, 만리 나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내 가사자락을 잡고, 내 그림자를 밟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가사 자락을 잡고 있는 사람, 즉 부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몸이 부처님과 가까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부처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사 몸이 천리 만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한다는 것, 절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권능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것, 그게 구행입니다. 단순히 찬탄한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짓이 없는 진실, 진리를 말하겠다는 실천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총지종 의례에서 십선회향(十善廻向)이 있습니다. 열 가지의 선한 행(行)으로 회향한다는 뜻입니다.

열가지 선한 행중에서 입으로 하는 선한 행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허망하고 샅된 말 아닌 바른 말로 공덕을 쌓고, 꾸미는 말 아닌 실다운 진실된 말로 공덕을 쌓고, 두 말로 이간하는 말 아닌 서로 화합한 말로 공덕을 쌓고,

이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행복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박하게 몸과 마음과 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고 맑은 마음, 밝은 정신, 밝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욕심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영감이고 아이디어며 범문이라 합니다. 즉 인과의 법에 맞는 이치가 저절로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 할 때 그 마음은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뭔가 욕심을 내고 이루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을 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과 지혜를 찾으려면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하셨듯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자체가 명상이고 생활속에서 불공 기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에 맞는 기도요 불공수행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라는 것만 기도요, 혹은 불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음을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속에서 진리에 부합한 자신의 할 바를 찾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며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부합하는 불공 기도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다 내려놓고 맑은 마음, 밝은 정신, 밝은 눈으로 진리에 부합한 기도가 중요

추악하고 나쁜 말 아닌 부드러운 말로 공덕을 이루겠습니다는 다짐이 바로 구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을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대원(大願)을 세우셨습니다. 부처님의 대원속에는 행복이 전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 뿐 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은 난행고행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행복의 길을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탐심도 성냄도 어리석은 마음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깊은 명상속에서 중도(中道)의 자리인 해탈의 경지에 들 수 있음을 깨달으셨고, 연기법과 사성제의 도리를 깨우치신 것입니다. 드디어 생사해탈의 경지인 극락행복인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기도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 이상, 그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휴전선 남쪽, 제일의 명산 설악산 산신과 신흥사 삼성각



▲ 신흥사 사천왕문

굽이굽이 깊은계곡, 기암괴석의 명산

설악산 누구나 한번은 가 보았던 남한 제일의 명산이다. 웅장한 바위들이 탐방객 압도하고, 안으로는 굽이굽이 계곡이 숨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곳이다.

높이 1,707.86m. 남한에서는 한라산(1,950m)·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백두대간의 허리부분으로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린다. 설악이란 이름의 유래는 <동국여지승람>에는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야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불린다고 하였다. 또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설산(雪山)·설봉산(雪峯山)이라고도 불렀다.

설악산은 태백산맥 연봉(連峯) 중의 하나로 최고봉인 대청봉(大靑峯)과 그 북쪽의 마등령(馬等嶺)·미시령(彌矢嶺), 서쪽의 한계령(寒溪嶺)에 이르는 능선을 설악산맥이라 하며 그 동부를 외설악, 서부를 내설악이라 한다. 또한 동북쪽의 화채봉(華彩峯)을 거쳐 대청봉에 이르는 화채릉, 서쪽으로는 귀떼기정봉에서 대승령(大勝嶺)·안산(安山)에 이르는 서북릉이 있고, 그 남쪽 오색약수(五色藥水)·장수대(將帥臺)일대를 남설악이라 부른다.

외설악의 북부에는 쌍천(雙川)이, 남부에는 양양 남대천(南大川)이 흘러 동해로 들어가고, 내설악의 북부에는 북천(北川)이, 남부에는 한계천(寒溪川)이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의 상류를 이룬다.

지질은 화강편암·결정편암·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차별침식 및 하식작용으로 지금과 같은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졌다.

금강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밀려 역사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신 봉정암과 오세암,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등 많은 불교 유적과 암자들이 있다.



▲ 신흥사 삼성각

설악의 중심사찰 신흥사와 삼성각

설악산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로는 내설악의 백담사와 외설악의 신흥사를 들 수 있다. 백담사는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慈藏)이 한계리(寒溪里)에 지은 이후 잦은 화재로 설악산 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는 외설악의 권금성을 앞두고 뒤로는 울산바위가 호위하는 신흥사가 있다. 이 사찰은 조선 인조 때 고승 운서(雲瑞)·연옥(連玉)·혜원(惠元) 등이 진덕여왕 때 자장이 창건한 향성사(香城寺)의 자리에 창건한 사찰이다. 지금은 조계종 제3교구 교구본사이다.

신흥사 삼성각은 극락보전 뒤편으로 자리한다. 정면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칠성단을 중심으로 좌, 우로 독성과 산신을 모셨다. 설악산과 신흥사의 역사성을 보고 조선말엽이나, 일본 강점기에 조성 되었을 것으로 잔뜩 기대를 품고 들어선 삼성각 안에는 너무나 밝은 색상의 산신과 독성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화기(畫記)를 보니 불기 2531년, 서기 1987년에 조성된 탱화였다. 유난히 금박이 도드라져 보이는 산신상은 소나무와 폭포,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좌측에는 호랑이와

우측으로 세 명의 동자가 시봉을 드는 모습이다. 다른 사찰의 산신탱과 비교되는 부분은 태극을 청, 홍으로 분리하여 얹어놓은 모양의 눈과 상투의 장식부분이 금박으로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동자가 든 지팡이에 매달린 호리병도 금박으로 장식한 뜻은 무엇인지? 시주를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다른 깊은 뜻이 있는지는 기자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기 어려웠다. 현대 산신탱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편이라 앞으로 학자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설악산 사찰에 전해오는 설화



▲ 신흥사 삼성각 산신탱화

백담사 산신 설화

백담사(百潭寺) 창건 이래 지금의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1783년까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친 화재를 입어 그때마다 사찰을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전해오는 설화에 의하면 어느날 주지스님의 꿈에 나타난 산신이 일러준 대로 대청봉에서 절까지 물웅덩이(潭)를 세어 백 번째가 되는 현재의 자리에 절을 세우고 '백담사(百潭寺)'라 이름 지은 후부터 좀처럼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 백담사 만해당

관세음보살 영험설화를 간직한 오세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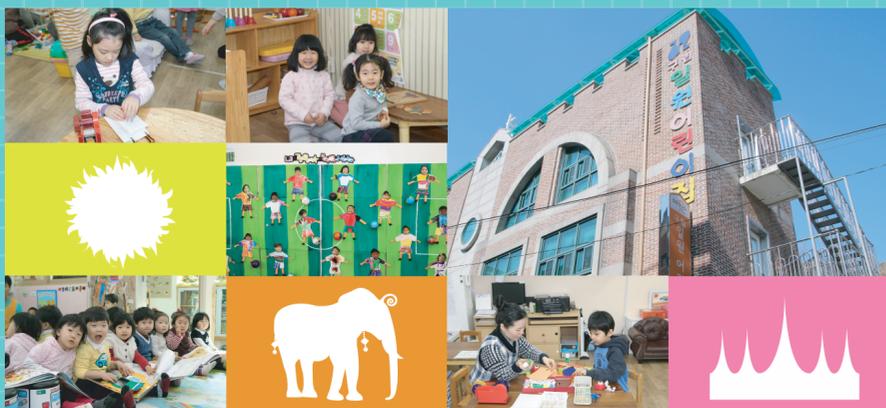
산신의 계시로 사찰을 증창한 출가한 백담사, 뒤편으로 마등령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조선조 최고의 명문장을 자랑한 금오신화의 저자 매월당 김시습과 만해선사가 머물며 『심현담(玄玄談)』의 주석서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참배객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원래 오세암은 관음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한 것은 1643년(인조 21)에 설정(雪淨)이 중건한 다음부터이며, 유명한 관세음보살 영험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설정스님은 고아가 된 형님의 아들을 절에 데려다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월동 준비 관개로 양양의 물치 장터로 떠나게 되었다. 이를 동안 혼자 있을 네 살짜리 조카를 위해서 며칠 먹을 밥을 지어 놓고는, "이 밥을 먹고 저 어머니(법당 안의 관세음보살상)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절을 떠났다.>

장을 본 뒤 신흥사까지 왔는데 밤새 폭설이 내려 키가 넘도록 눈이 쌓였으므로 혼자 속을 태우다가 이듬해 3월에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법당 안에서 목탁소리가 은은히 들려 달려가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가 목탁을 치면서 가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기운과 함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아이는 관세음보살이 밥을 주고 같이 자고 놀아 주었다고 하였다.> 다섯 살의 동자가 관세음보살의 신력으로 살아난 것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관음암(觀音庵)을 오세암(五歲庵)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속초 = 김충열 기자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 02-445-2326



이번 호부터 특집으로 한국의 고도를 탐방 한다. 고도(古都)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옛 도읍을 말한다. 우리역사의 옛 도읍으로는 서울(한양), 평양, 경주, 부여, 공주, 김해를 대표적인 고도(古都)로 볼 수 있다. 도시는 나름대로의 환경적,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자연 환경의 대표적인 필수 조건은 용수의 공급을 위한 강(江)과 식량의 공급과 거주지로 충분한 넓은 평야를 들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고도 역시 위의 필수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총지정보는 불자들에게 고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진언밀교의 흔적들을 찾아 소개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신 통계와 최근의 문화 유적 조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글을 실고자 한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번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慶州)

특집 순서

- 경주의 역사와 오늘
- 불국도 남산의 유적
- 진언 밀교의 흔적을 찾아서
- 불교총지종과 경주

경주의 역사와 오늘

경주의 자연 환경

경주시는 동쪽은 동해, 서쪽은 청도군과 영천시, 남쪽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쪽은 포항시와 접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는 영천~경주간 형산강구조곡(兄山江構造谷)이 교차하는 지점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침식 분지가 된 지점에 시가지가 발달하였다. 시 전체 면적은 1,324.39㎢이고, 인구는 26만 9,343명(2008년 인구통계)이다.

명활산(明活山), 금오산(金鰲山), 옥녀봉(玉女峰), 선도산(仙挑山), 소금강산(小金剛山) 등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는 자연요새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주~양산간 구조곡도 경주 도심지에서 교차하여 거의 시 전역이 형산강의 상류·중류부의 분지에 해당된다. 지역의 기후는 기온 교차가 비교적 심한 내륙성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 경주시가지 전경



▲ 감포 앞바다 대왕암(문무대왕 수중릉)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경주

교육·문화의 고도인 경주의 일찌기 신라의 화랑도와 682년(신문왕 2)에 국학(국립대학)이 설치되었다. 국학은 고려시대 경주향교의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서원으로는 서악서원(西岳書院), 옥산서원(玉山書院)과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문을 닫은 구강서원, 인산서원, 매월당영당, 운곡서원이 있다.

경주는 아직도 경북 남부의 교육 중심지로 그 명맥을 지금도 유지 한다. 현재 교육기관으로는 2009년 기준으로 유치원 63개 원, 초등학교 46개 교(분교 8개 교), 중학교 20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의 초·중등 교육기관이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전문대학 1개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경주대학교·위덕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와 특수학교 1개 교가 있다.



▲ 안압지의 밤=사진작가 권미경

신라는 원래 사로 6촌에서 비롯되었다. 이 촌락국가는 기원 전후 무렵 사로국(斯盧國)으로 발전하였으며, 점차 진한 12국의 맹주국(盟州國)이 되었다. 그 뒤 사로국이 주변지역에 대한 정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자 6촌은 6부로 바뀌고 이들의 지역은 왕경으로 발전한다. 경주는 궁실과 각종 관청이 들어서고 지배층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통일 이후의 전성시대에는 17만8936호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935년(고려 태조 18년) 신라가 고려에 항복할 때 까지 경주는 통일 신라의 왕경으로 그 역할을 한다. 1238년에는 몽고군이 이 지역을 휩쓸어 황룡사 구층목탑이 불타는 등 수많은 문화재의 손실을 입었고, 1308년(고려 충렬왕 34년) 계림부 이름이 바뀐다.

조선 개국 후 8도체제가 확정되면서 이곳에 경상도의 감영이 두어졌으나 1408년(조선 태종 8년) 무렵 감영이 상주목으로 옮겨졌고, 1415년에 경주부로 개칭되었다. 조선 후기에 동성(同姓) 마을이 많이 형성되었는데, 양동의 이씨(李氏)와 손씨(孫氏)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경주 출신 최제우(崔濟愚)가 인내천(人乃天)의 동학사상을 창시하여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경주는 역사적 사건 만큼이나 많은 유물·유적을 남기고 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물·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만도 국보 31점(불국사삼층석탑 일괄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73점, 사적 및 명승 77개소, 천연기념물 3종, 중요민속자료 16종, 중요무형문화재 2종이 지정 되어 있다.

문화행사로는 문화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3년마다(8~11월) 보문관광단지 내 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신라문화제는 매년 10월에 개최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 해는 같은 시기에 개최한다. 전국국악대전, 신라미술대전, 한글백일장, 화랑씨름대회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 청마백일장, 목월백일장, 원효예술제, 만파식적제, 동학예술제 등이 열리고 있다. 특히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에서는 '신라문화학회'의 개최와 전문학술지인 '신라문화'를 간행하여 경주의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런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집결지로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10대 문화 유적의 도시로 지정 되었다.

경주=특별 취재단, 사진제공=경주시청

경주의 역사

객관적인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추정된다. 청동기 이전에 해당하는 유물·유적이 아직은 발견된 바 없다. 고인돌, 청동검, 간돌 칼(마제석기) 등을 부장한 무덤 등 이 시기 유물·유적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 구정동, 평동 입실리 유적 등은 우리나라 후기 청동기문화를 밝혀주는 귀중한 유적이다. 특히 조양동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일찌기부터 이 지역은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일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이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마두관음(馬頭觀音)은 중생구제의 대세력(大勢力)과 용맹정진력(勇猛精進力)을 상징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2)

마두관음보살 (馬頭觀音菩薩)



법경 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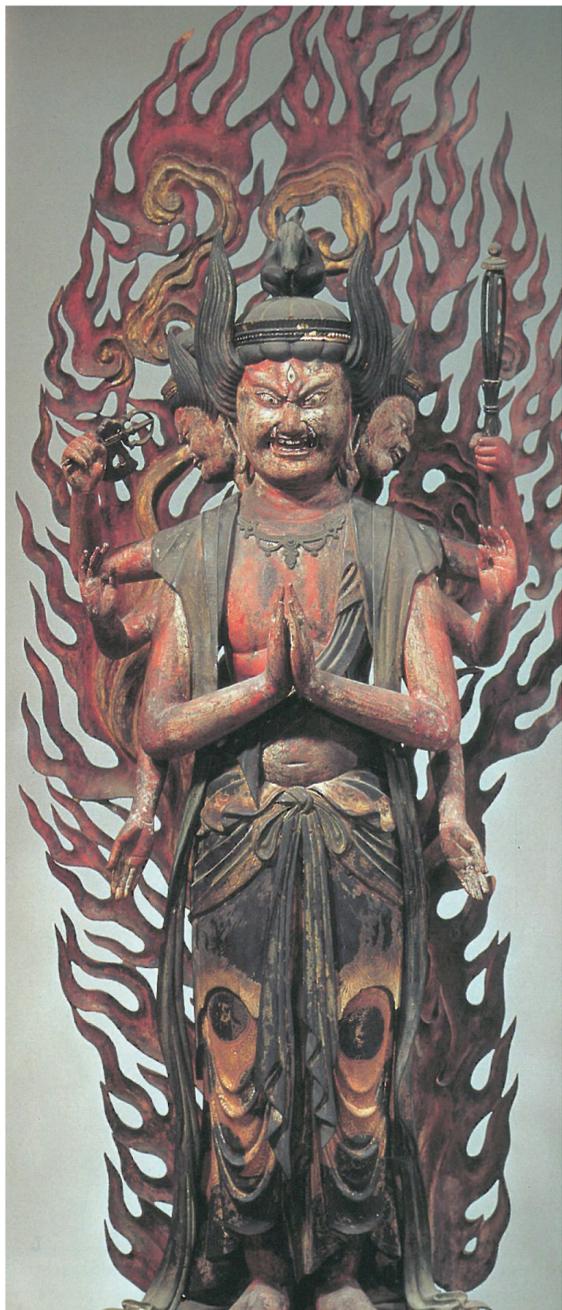
부처님이나 보살의 머리에 여러 가지 형상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하게 말(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보살이 있습니다. 그 보살이 바로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입니다. 그런데 왜 마두관음보살은 머리에 말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두(馬頭)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의 대원(大願)과 자비심이 아주 크고 강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오로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나투신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중생구제에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모든 짐승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제하고자 나투실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짐승을 구제할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투십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제하는 보살이므로 그 구제대상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투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생이 짐승에서 나온 말인데, 이를 감안한다면 구제 대상에 사람과 짐승, 모든 생명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사람을 구제하고자 할때는 천수관음, 십일면관음, 준제관음, 여의륜관음 등으로 나투시고, 못짐승들을 구

제할때는 마두관음보살로 나투시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투시므로 이 관세음보살을 일러서 변화관음(變化觀音)이라고 합니다.

이 마두(馬頭)의 형상에서 사람과 짐승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하는 관세음보살의 광대무량한 대자비심(大慈悲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에는 사람과 짐승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말(馬)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인도신화의 비슈누신에서 기원한 것이 마두관음



삼면팔비(三面八臂)의 마두관음상

이 마두관음(馬頭)은 인도신화(印度神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인도의 베다에 나오는 유지(維持)의 신(神)인 '비슈누신'의 열여덟 번째의 화신(化身)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비슈누는 인도 힌두교의 3대신(大神)으로 시바와 함께 크게 신봉되는 신입니다. 3대신은 브라만, 비슈누, 시바인데, 브라만은 창조, 비슈누는 유지, 시바는 파괴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슈누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지상에 부활하는 신'으로 이세상에 나타날 때는 '성인(聖人)'이나 '영웅'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비슈누는 변화의 화신으로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악을 타파하는 무서운

신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들에게 한없이 이의를 베풀어주는 자비로운 신이라고 합니다. 그 비슈누의 화신(化身)이 말머리를 하고 나타나서 브라만의 원수를 갚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은 고대 인도 대륙에서 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성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말에 대한 제사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말의 신성성이라든가 말의 위력을 강조한 결과 말머리를 한 모습으로 관음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마두관음(馬頭觀音)로, 산스크리트어로는 하야리바(Hayagriva)라고 하며 '말 머리, 말 갈기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슈누가 변화하여 나타난 것은 마치 관음보살이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의 비슈누신이 불교에 유입되면서 관세음보살의 변화관음으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비(三面二臂)의 마두관음상

밀교에서 마두관음을 '대력지명왕(大力持明王)'이라 칭함

그래서 이 마두관음을 밀교의 양부대경 가운데 하나인 '대일경'에서는 '대력지명왕(大力持明王)'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명왕'이란 뜻인데, 그 힘이란 바로 중생들의 신심(信心)과 관음보살의 중생구제의 용맹심(勇猛心)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維持)시켜주는 힘을 가리킵니다. 이를『대일경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보배로운 말(寶馬)은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커다란 정진력에 비유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말해 마두관음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는 말에 비유해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일경소』에는 마두관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동물 중에서도 특히 수초(水草)를 찾아 먹으나, 말 중에서도 굶주린 말이 식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처럼, 보살 중에 관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며, 그 중

에서도 마두관음(馬頭觀音)은 중생구제의 마음이 매우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마두관음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여러 동물 중에 말(馬)이 관음보살의 머리에 새겨져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는 관음보살의 대자비심을 말(馬)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같이 마두관음이 말 머리를 이고 있는 것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의 보마(寶馬)가 사방으로 내달리며 위력으로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이, 생사의 큰바다를 건너 다니며 사마(四魔)로부터 항복을 받는 큰 위력과 정진력(精進力)을 나타내며, 또한 무명(無明)의 무거운 업장(業障)을 막아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후대의 민간신앙에서는 말이나 소 등 가축의 무병(無病)·식재(息災)·안전(安全) 등을 비는 뜻에서 길가의 돌부처에 이 마두관음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축생(畜生)들을 교화하여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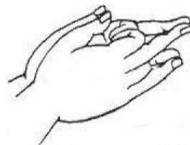
이러한 말의 형상이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세워진 아소카왕의 석주(石柱)에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도 말(馬)의 의미를 익히 짐작할 수 있으며, 아소카왕을 일러 불교의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경전상의 내용과 같이 모두 말과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두관음은 밀교의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 가운데 관음원(觀音院)의 제1존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아주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노형(忿怒形)이라 하는데, 화가 나서 분노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을 더욱 발현하기 위해 손톱만큼의 번뇌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눈을 부릅뜬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량수여래의 분노신(忿怒身)으로서 화난 모습을 한 유일한 관음보살이 이 마두관음입니다. '분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두관음을 밀교에서 달리 부르는 명호(名號)가 있는데, '신질금강(迅疾金剛)'이라 합니다. '빨리 낫게 하는 금강보살'이란 뜻인데, 중생들을 속히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빨리 낫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두관음의 존상(尊像)을 한번 살펴

볼까요. 마두관음의 존형(尊形)은 적색신(赤色身)에 삼면이비(三面二臂-세 개의 얼굴과 두 개의 팔) 또는 팔비(八臂-여덟 개의 팔)를 하고 있고, 삼면(三面)의 얼굴에는 각각 3개의 눈이 있으며, 손은 마두인(馬頭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마두관음을 조각하거나 그림으로 조형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마두관음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호에서 불공 견학관음보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관음의 마두인(馬頭印)

다시 **우리시조** 읽는

배꽃에 흰 달빛(다정가.多情歌)

지은이: 이조년(李兆年)



배꽃에 흰 달빛 깊은밤 은하수
한 가지 봄 마음을 소쩍새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은 三更인제
一枝 春心を 子規야 알라마는
多情도 病人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지은이 이조년(李兆年)은 1268년 태어나 고려 말 대제학을 지낸 문관이다. 호는 매운당(梅雲堂), 백화현(百花軒)으로 불린다. 1294년(충렬왕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의 지위인 비서랑(秘書郎) 등을 지냈다. 1306년 비서로 충선왕을 모시고 원나라에 갔을 때, 왕유소(王惟紹)·송방영(宋邦英) 등이 왕을 모함하여 충렬왕 부자를 이간시키고 충선왕의 세력이 커지자 처벌된 일이 있었다. 이 때 어느 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충렬왕을 보필하여 유배되었다. 귀양에서 풀려나와 13년간

고향에서 은거하면서 한 번도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지 않을 정도로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하다. 이후 복권되어 벼슬이 예문관 대제학까지 이른다. 뜻이 확고하고 엄격한 성품인데도 이 시조에서는 다정다감하기만 하다. 깊은 밤, 흰 배꽃에 달빛이 내려와 포개질 때 꽃잎이 살짝 떨리는 듯한 섬세한 감각이 느껴진다. 또한 원나라의 지배아래 있던 당시 나라와 시절에 대한 근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편집 정리= 김중열 기자



내용참조: "불교총전" 불법 편 71P 참조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금동비로자나불좌상 (金銅毘盧遮那佛坐像)
시 대(時代): 통일신라(統一新羅) (9세기 경)
재 질: 금동제(金銅製) 크기: 높이 177cm
소 장 기 관: 경주 불국사



▲ 불국사 비로전 금동비로자나불(국보 24)

불국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의 발원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불국사 비로전에 모셔져 있는 높이 1.77m의 금동비로자나좌상은 국보24호이다. 머리칼을 작은 소라 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얼굴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인상을 풍기고 있다.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은 매우 얇게 표현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는 옷 주름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다. 손모양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어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 모양과는 반대로 표현되었다. 불국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백불사 약사여래입상(국보 제28호)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 중 하나이다. 이 불상은 8세기 중엽경의 작품인 석굴암본존불(국보 제24호)의 특징과는 다른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경주 불국사=김중열 기자

불교총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